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89호 [주체 제25698호] 주체106(2017)년 7월 8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3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7월 8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당과 무력기관의 일꾼들, 대륙간관도르케트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어머니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이 집대성되어있는 혁명의 대정당, 주체의 최고성지는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이 모셔져 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향열에는 당기와 공화국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려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땀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씨가 띄여져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결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

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결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진계 참가자들은 자주와 선군의 기치높이 백전백승하는 필승불패의 백두산대국을 최대의 애국유산으로 물려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만고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맹세로 가슴 불태웠다.

본사정치정보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만수대연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3돐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인 무함마두 부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영원한 수령

국제사회계의 다함없는 칭송의 목소리

주체의 광휘로운 빛으로 사회주의 위업, 인류사주위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끝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한평생을 수놓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다함없는 칭송의 목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고있다.

방글라데시신문 《데일리 인다스트리》는 다음과 같이 진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조선을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건설하시고 세계사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탁월한 정치가이시다.

많은 나라의 국가수반들과 저명한 인사들이 사랑과 정경, 신망의 차이를 초월하여 그에게 끝없이 애복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회고 국제위원회 결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회고 국제위원회가 6월 25일에 결성되었다.

최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봉유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회의 국제연합 총서기 미하일 반셀프가 선출되었다.

최고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를 철저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로 건설하시였다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김일성주석의 명도림에 조선에서는 무상치료제, 무료교육제를 비롯한 인민적시책들이 실시되고 세금제도도 완전히 철폐되었으며 이 나라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발전되였다.

주석의 위대한 업적과 숭고한 덕망은 새인을 감동시켰으며 누구나 그를 열렬히 존경하고있다.

김일성주석 서거 23돐 스위스 회고위원회는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하늘이 낸 위인이신 김일성주석은

[조선중앙통신]